

## 경제포커스

###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오천수(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응전

정병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응전

정병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jbs66@sdi.re.kr

## I. 들어가며 : 전환기의 대도시경제에서 비즈니스서비스

### 1. 21세기 대도시권 경제의 전환과 서비스

- 20세기 후반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전개되면서 국가경제의 견인차로 부상한 대도시권 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유발되고 있음
- 우선,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는 과거 물적투자 위주의 요소투입형 ‘몰타르경제’ (Mortar Economy)가 지식에 기반한 창조와 혁신주도형 ‘클릭경제’ (Click Economy)로 이행하고 있음.<sup>1)</sup> 이와 같은 경제시스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지식의 창출과 흡수,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양극화대책연구단장, 산업경제센터, 수도권정책센터
- 서울시 디지털컨텐츠 산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구조·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 2003-2005년
- 선진국의 혁신클러스터/세계의 지역혁신체계 외 다수

1) 클릭과 몰타르는 찰스와 슈왑이라는 두 경영자가 사용한 용어로 오프라인 위주의 전통적 기업과 온라인 위주의 현대적 기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나, 여기서는 전통적 경제시스템과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대변하는 용어로 차용한 것임

혁신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의 주된 원천으로 작용함

○ 다른 한편으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축이던 제조업 경제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서비스 경제가 이를 대체하는 ‘경제의 서비스화’ (servicization of the economy)도 심화되고 있음

- 실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에서 90년 이래로 국가경제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의 경우, 90년에 70% 수준이던 서비스업 생산이 04년 현재 76%로 증가하였고,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세를 보였던 일본의 경우에도 90년 58%에서 04년 68%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이들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가의 부가가치 총액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여 서비스화의 진전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실제, 80년에 47.3%에 불과하던 서비스 생산은 00년 50%, 다시 06년 현재 57.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국내 각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추이(1980~2006)

(단위: %)

	1980년	1990년	2000년	2006년
총부가가치	100.0	100.0	100.0	100.0
농림수산업	18.1	9.8	5.3	3.6
제조업	24.4	27.3	29.4	27.8
서비스업	47.3	49.5	54.4	57.2
기타 산업	10.2	13.5	10.9	11.4

주 : 기타산업은 전기가스업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의미  
 자료 : 통계청

<표 2> 국가별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단위: %)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미국	70.1	72.1	74.6	75.8
프랑스	69.6	72.0	74.3	75.8
영국	62.9	66.1	70.4	72.7
독일	62.0	66.6	68.5	69.8
일본	58.2	63.9	66.3	68.2(03)

자료 : 통계청

- 이처럼 혁신주도형 클릭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과거 산업경제의 잔여적 부문(residual sector)으로 간주되었던 (비즈니스)서비스가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조와 혁신주도형 클릭경제로의 이행은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외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가공, 새로운 지식을 창출·활용할 수 있는 보완적 활동을 요구하는 바, 자신은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이들 보완적 활동은 전문화된 서비스기업에 외부화할 필요성을 극대화함
- 이러한 과정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이 바로 비즈니스서비스로써, 심화되고 있는 국제 경쟁환경에서 대도시경제의 선도적 견인차로 기여하고 있음

## 2. 국가 및 대도시경제의 볼트와 너트, 비즈니스서비스

-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 서비스업의 일부인 비즈니스서비스에는 과거 기업 내부적으로 수행되던 경제활동의 외부화(outsourcing) 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집약적 서비스 영역<sup>2)</sup>으로서,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SIC 72)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SW 자문 및 개발·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DB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연구개발업(SIC 73)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SIC 74) : 법무 및 회계업/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광고
  - 사업지원서비스(SIC 75) :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비즈니스서비스가 산업경제에 대해 가지는 의의와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음

2) 작은 공급자주도형 서비스/ 규모집약형 서비스/네트워크형 서비스/전문기술 및 과학기반형 서비스 등으로 비즈니스서비스는 전문기술 및 과학기반형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실증연구에 따르면 이들 부문은 서비스 부문 고용의 5% 이하를 차지하나 전체 혁신활동 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함(Soete & Miozzo, 1989)

- 우선, ‘성장동력의 약화’ 와 ‘고용없는 성장’ 의 시대에 비즈니스서비스는 추가적인 부가가치와 고급 전문인력의 고용창출 원천으로 기여하고 있음
  - 실제,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지난 93년 이래로 제조업 고용이 11.2%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42.3%의 증가를 보인 것과 대비해, 무려 200.4%에 달하는 증가세를 나타냄
  -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 및 고용계수와 관련해서도 서비스업의 취업계수(산출액 10 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는 15.2로써, 제조업 취업계수인 4.2를 크게 상회하며, 높은 지식집약성과 노동생산성을 보이는 사업서비스업 또한 6.5로 제조업, 특히 전기 및 전자 기기와 같은 첨단제조업의 취업계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표 3> 업종별 취업계수와 고용계수(95-03년)

구 분	취업계수 <sup>1)</sup>		고용계수 <sup>2)</sup>	
	1995년	2003년	1995년	2003년
제 조 업	8.5	4.2	8.0	3.8
섬 유 및 가 죽 제 품	20.2	9.7	18.1	8.4
화 학 제 품	6.8	3.4	6.6	3.3
전 기 및 전 자 기 기	13.5	3.8	13.1	3.7
서 비 스	23.0	15.2	14.8	10.3
도 소 매	49.0	35.0	17.4	16.0
통 신 및 방 송	10.9	3.8	10.7	3.6
금 용 및 보 험	15.1	8.0	15.0	7.9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9.3	6.5	6.6	5.4
전 산 업	15.9	10.4	10.5	7.1

주: 1)는 취업자수(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2003년가격기준 불변산출액(10억원),

2)는 피용자수/2003년가격기준 불변산출액(10억원)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 또한 날로 세계화하는 경제환경에서 비즈니스서비스업은 경제의 국제중심성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경제의 세계화에서 일종의 **볼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기실, 금융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고급인력의 범지구적 이동이 비즈니스서비스를 매개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계화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비즈니스서비스의 집적은 경제의 세계화를 매개하는 매개자이자 그 산물임
  - 이는 이미 20세기 후반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부상한 대도시권 경제, 가령 뉴욕, 런던, 동경이 비즈니스서비스의 집적을 통해 국제 중심성을 획득한데서 입증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비즈니스서비스는 산업경제 전반에서 혁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견인차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일종의 **네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실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인 중간수요율(중간수요액\*100/총수요액)을 보면, 서비스(38.8%)의 낮은 중간수요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는 제조업(55.9%)과 비슷한 수준인 52.4%를 나타내고 있으며,
  - 특히, 법무 및 회계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광고 등은 70%를 크게 상회함
- 이와 같은 산업간 연관에 의해 비즈니스서비스는 기업내 경영 및 조직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일반적으로 ‘서비스 캡슐화’(service encapsulation)로 부르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의 일부를 구현한 것으로, 전통 제조업체로 하여금 서비스 기능의 추가, 흡수에 의해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함 (Howell, 2003)
  - 이러한 것으로는 직거래 및 중개(disintermediation & intermediation)/가상화(virtualisation)/서비스의 체화(embodied service)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

〈표 4〉 주요 업종별 중간수요율(1995~2003년)

(단위 : %)

업종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전산업	50.3	48.0	48.6	48.5
농림어업	70.0	58.2	69.5	67.3
광업	102.6	100.5	99.3	98.1
제조업	56.5	54.2	54.5	55.9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9.2	18.8	23.1	22.2
서비스업	39.4	40.5	38.2	38.8
도소매업	42.7	29.7	40.4	38.9
통신 및 방송업	68.8	64.0	57.8	55.6
금융 및 보험업	81.6	68.6	61.1	59.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3.8	60.4	50.0	52.4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	11.0	13.9	15.6	14.8

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재가공

## II. 서울의 비즈니스서비스업 주요 현황과 실태

### 1.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업 현황

- 05년 현재 전산업 대비 서비스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각각 86.4%, 7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3.2%, 9.9%가 비즈니스서비스업에 해당함. 사업체 대비 종사자의 높은 비중은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시사함
- 제조업에서 종사자 감소가 있었던 지난 93년~05년 동안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각각 107.7%, 200.4%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과 연구개발업의 성장세는 괄목할만함(<표 5>를 참조)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의 경우 사업체와 종사자 각각 604.1%, 849.8%의 성장이 있었고,
  - 연구개발업의 경우에도 각각 289.3%, 168.3%의 성장이 있었음

<표 5> 전국의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1993~2005년)

구분	사업체(개, %)			종사자(명, %)		
	1993년	2005년	93-05년	1993년	2005년	93-05년
전산업	2,304,250	3,204,809	39.1	12,245,073	15,147,471	23.7
농림어업광업	3,924	4,167	6.2	77,988	51,666	-33.8
제조업	281,590	340,183	20.8	3,884,496	3,450,893	-11.2
전기수도건설업	53,050	91,047	71.6	693,186	846,234	22.1
서비스업	1,965,686	2,769,412	40.9	7,589,403	10,798,678	42.3
사업서비스업	42,220	87,671	107.7	354,922	1,066,107	200.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343	9,456	604.1	16,960	161,083	849.8
연구 및 개발업	605	2,355	289.3	29,324	78,673	16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849	54,564	66.1	218,607	369,186	68.9
사업지원 서비스업	7,423	21,296	186.9	90,031	457,165	407.8

-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표하는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입지특성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집적경향을 나타냄
- 실제,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살펴보면, 광역시에 전체의 50%

가 입지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는 25.4%가 분포하고 있음. 더욱이, 이들 공간적 분포는 지난 93년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상대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세와는 상반되게,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광역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의 전산업을 크게 상회하는 72.1%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거대도시 서울의 경우에는 05년 현재 전국의 비즈니스서비스업 종사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50.7%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집적의 정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 이와 같은 대도시지향적 입지특성은 산업과의 전후방 연계에 의한 대규모 수요시장과 풍부한 물적 인프라의 존재, 사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의 축적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y)와 동종 및 연관업종의 집적과 연계에 의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국지화경제'(localization economy)에 따른 것임
- 따라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지식집약적 비즈니스서비스의 입지논리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

〈표 6〉 비즈니스서비스업 종사자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논리

(단위: 명, %)

		전국	광역시 계	서울시
전산업	1993년	12,245,073	6,695,936	3,974,457
		100	54.7	32.5
	2005년	15,147,471	7,613,586	3,843,010
		100.0	50.3	25.4
사업서비스	1993년	354,922	254,192	169,551
		100.0	71.6	47.8
	2005년	1,066,107	768,980	540,908
		100.0	72.1	50.7

## 2. 급성장하고 있는 서울의 비즈니스서비스업

- 05년 현재 서울시 산업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와 종사자 각각 87.8%,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전산업의 4.7%, 14.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과거 산업경제의 주축으로 기여하였던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인 12.3%를 상회하는 수준임



- 지난 93년 이래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각각 113.5%, 219.0%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같은 기간 제조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각각 13.9%, 57.9%의 감소를 보였고 서비스업의 경우 23.1%, 22.6%의 성장을 보인 것과 대비됨
- 말하자면, 지난 10여년 간 제조업 침체를 대신해 서비스업, 특히 비즈니스서비스업이 추가적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산업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음

<표 7> 서울시 산업별 주요 현황과 추세(1993~2005년)

업종	사업체(개, %)			종사자(명, %)		
	1993년	2005년	93-05년	1993	2005년	93-05년
전산업	624,841	741,229	18.6	3,974,457	3,843,010	-3.3
농림어업광업	175	80	-54.3	16,774	1,340	-92.0
제조업	81,299	69,982	-13.9	1,125,935	473,643	-57.9
전기수도건설업	14,471	20,104	38.9	278,851	237,804	-14.7
서비스업	528,896	651,063	23.1	2,552,897	3,130,223	22.6
사업서비스업	16,467	35,165	113.5	169,551	540,908	219.0

### 3. 주요 부문별 현황과 변화 추세

-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구성하는 네 개 부문 가운데 산업지원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종사자를 기준으로, 05년 현재 산업지원서비스업이 3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34.2%를 차지하고 있음
  -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운데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그리고 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이 전체 종사자의 대다수인 68.4%를 차지하고 있음
- 변화추세와 관련하여,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부문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으로 93-05년 기간 동안 사업체와 종사자 각각 648.2%, 819.1%에 달하는 경이적인 성장이 있었음
  - 특히, 종사자 측면에서 컴퓨터시스템 설계와 자문업, SW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에는 무려 1173.5%, 1038.1%에 달하는 성장을 나타내, 비즈니스서비스업 전반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함

- 이러한 전반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핵심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와 종사자 각각 66.6%, 41.9%로 비교적 미약한 성장세를 보여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의 추진이 요구됨
  -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과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종사자는 389.8%, 113.6%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0.6%의 종사자 감소가 있었고, 광고업이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도 종사자의 성장은 35.0%, 28.3%에 불과함

〈표 8〉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부문별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

업종	사업체(개, %)			종사자(명, %)		
	1993년	2005년	93-05년	1993년	2005년	93-05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822	6,150	648.2	13,645	125,418	819.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90	221	145.6	1,133	14,429	1173.5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536	5,109	85.3	8,341	94,931	1038.1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60	163	171.7	1,062	3,311	211.8
DB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95	614	546.3	2,808	12,158	333.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41	43	4.9	301	589	95.7
연구 및 개발업	291	793	172.5	8,149	19,990	145.3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129	447	246.5	6,614	14,796	123.7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162	346	113.6	1,535	5,194	23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880	21,459	66.6	111,520	185,217	41.9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3,785	7,569	100.0	26,547	50,332	89.6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353	1,817	414.7	4,567	22,371	389.8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801	3,930	40.3	44,770	61,921	38.3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2	615	134.7	5,680	12,135	113.6
광고업	1,913	3,180	66.2	16,833	22,724	35.0
전문 디자인업	627	1,499	139.1	3,848	7,445	93.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39	2,849	-9.2	9,275	8,289	-10.6
사업지원 서비스업	2,474	6,763	173.4	36,237	210,283	480.3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864	2,185	152.9	10,141	110,953	994.1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1,610	4,578	184.3	26,096	99,330	280.6
사업서비스업 계	16,467	35,165	113.5	169,551	540,908	219.0

#### 4. 양적 급성장세과 대비되는 취약한 경쟁력

- 앞서 언급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 산업이 가지는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이는 이미 지적한 대로 한국의 경우에 선진국 경제와 비교하여 지식집약적 서비스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에서 확인됨
- 이외에, 서비스와 비즈니스서비스의 국제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도 비즈니스서비스의 취약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사실인데, 실제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100)을 기준으로 다른 5개 선진국의 경우에는 1.5배~2.5배 정도의 높은 생산성을 나타냄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더욱 저조한 수준을 보여, 5개국 대비 1.5~7.8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더욱이 이와 같은 생산성 격차가 지난 95년 이래로 꾸준히 확대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임
  - 04년 현재 미국과의 노동생산성 차이는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웃하는 일본과는 8배에 가까운 생산성 차이를 나타냄

〈표 9〉 서비스업 및 사업서비스업 국제생산성 비교: 구매력평가지수(PPP) 적용

국가		1995년	2000년	2004년	평균
서비스업	한국	100.0	100.0	100.0	100.0
	미국	-	246.1	252.5	245.7
	프랑스	-	202.2	197.8	198.3
	독일	170.8	167.7	163.8	168.2
	영국	141.0	150.0	154.6	148.3
	일본	189.8	188.4	187.6	189.1
부동산·사업서비스업	한국	100.0	100.0	100.0	100.0
	미국	-	211.8	292.5	248.8
	프랑스	-	156.5	205.3	174.1
	독일	148.2	146.8	185.3	174.1
	영국	89.3	106.5	153.1	113.0
	일본	482.0	538.4	786.3	579.9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2006.

- 취약한 경쟁력의 단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다른 요소는 국가간 서비스 거래로써, 전체적으로 00년 이후 여행수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서비스수지에서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실제, 90년 6억1천만 달러 적자에 불과하던 서비스수지는 10년이 지난 00년 28억5천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다시 06년 1백8십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유사하게, 사업서비스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90년 6억8천만 달러에서 06년 68억3천만 달러로 적자폭이 약 10배에 가깝게 증가함
- 이러한 결과는 90~06년 기간 동안 사업서비스 수입액은 4.5배 정도의 증가를 보인 반면, 지급액은 무려 11배 가깝게 증가한데서 비롯한 것임

<표 10> 서비스 수지 현황 및 추세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서비스수지	-614.9	-2,978.8	-2,847.8	-13,658.2	-18,762.9
사업서비스 수지	678.8	954.3	-3,128.3	-6,115.2	-6,834.3
사업서비스 수입	2,375.6	6,760.8	7,199.8	9,422.3	13,070.6
사업서비스 지급	1,696.8	5,806.5	10,328.1	15,537.5	19,904.9

자료 : 한국은행

### 5. 취약한 경쟁력의 요인으로서 사업체의 영세성과 낮은 혁신역량

- 상술한 바와 같은 서비스 및 비즈니스서비스의 취약한 경쟁력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초래된 것이긴 하나, 무엇보다도 영세한 사업구조에서 비롯한 것임
- 실제, 비즈니스서비스업체 가운데 10인 미만의 소기업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기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구조를 나타냄
- 가령, 주요 비즈니스서비스 업종인 법무회계 서비스의 경우, 전체의 90.8%가 10인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5인 미만은 57.4%)인 반면, 100인 이상은 0.3%에 불과함
- 다른 창조적 비즈니스서비스인 광고 및 전문디자인업의 경우에도 10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0인 이상의 대기업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

<표 11> 사업서비스 주요 업종별 종사자 규모 분포

(05년, 단위: 개)

	사업 서비스						
	법무회계	시장조사 경영상담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 비스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	
전체	35,165	7,569	1,817	3,930	615	3,180	1,4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인	18,141	4,343	867	1,651	144	1,920	966
	51.6	57.4	47.7	41.1	23.4	60.4	64.4
5-9인	8,578	2,528	482	1,074	172	751	374
	24.4	33.4	26.5	27.3	28.0	23.6	24.9
100인 이상	851	26	33	89	21	16	-
	2.4	0.3	1.8	2.3	3.4	0.5	-

- 이와 같은 영세한 사업구조는 곧 지식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관건인 저조한 혁신역량으로 이어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구분되는 ‘서비스혁신’ (service innovation)은 무형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수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전문인력을 매개한 지식교류와 학습이 중요한 메커니즘을 구성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서비스업 혁신율(혁신에 성공한 적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각각 33.4%(지식기반서비스업은 43.3%, 비지식기반서비스업은 16.3%)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극히 저조한 28.9%의 수준을 보임(<표 13> 참조)
- EU 13개국의 서비스기업 혁신율은 국가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40% 수준을 보였고, 특히 지식집약적서비스의 경우에는 54-68%의 수준을 나타냄

<표 12> 혁신기업으로 식별된 서비스기업 비율 : EU의 경우

(단위: %)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네델란드	영국	전체
서비스 전체	55	46	30	31	58	36	40	40
도매	58	39	27	-	52	36	33	34
수송	54	26	13	11	33	21	34	24
통신	81	100	100	52	86	74	60	64
금융	55	70	48	45	67	40	49	54
컴퓨터서비스	69	71	89	52	73	68	81	68
기술서비스	21	61	36	39	78	52	38	55

주: 기술서비스는 건축 및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 기술자문을 포함  
 자료 : Howell & Tether(2002)

<표 13> 서울시 주요 서비스 업종별 제품 및 공정혁신율

		혁신율(A나 B)	제품혁신(A)	공정혁신(B)
통신업(KSIC=64)		12	12	3
		35.3%	35.3%	8.8%
금융·보험업(65-67)		32	30	11
		36.0%	33.7%	12.4%
비즈니스 서비스	컴퓨터서비스업(72)	139	127	58
		58.4%	53.4%	24.4%
	연구개발업(73)	31	28	17
		63.3%	57.1%	34.7%
전문사업서비스업(74)	55	47	27	
	28.9%	24.7%	14.2%	
지식집약산업 합계		276	251	119
		43.3%	39.3%	18.7%
비지식집약산업(40-63)		60	47	32
		16.3%	12.8%	8.7%

자료 : 정병순, 2004

- 이외, 지식교류 및 지식확산의 주체인 고급 전문인력의 획득이 어렵다는 점도 취약한 경쟁력을 설명하는 다른 한 가지 요소임
  - 이와 관련하여, 비즈니스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수 전문인력의 채용’ (19.7%)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19.9%) 등이 지적되었는데,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 요인(21.6%)은 경영자금의 부족(14.9%)이나 과도한 경쟁업체 존재(16.2%)와 함께 3대 경영애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 전문인력의 부족은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도 응답됨

### III. 서비스경제의 세계화와 한미 FTA, 양날의 칼

#### 1. 한미 FTA 협상, 서비스 분야의 주요 내용

- 지난 4월 2일자로 타결된 FTA 협상은 총칙을 제외하고 상품 등 총 20개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업서비스를 포함하되 금융서비스나 통신, 전자상거래 등은 별도 chapter로 다루고 있는 서비스 chapter임(외교통상부, 2007)
- 한미 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포괄주의 접근’ (Negative List App)에 의거, 유보안에 기재된 사항 외에 시장접근 제한 조치와 현지주재 의무부과를 금지하는, 사실상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함
  -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 의무 조항으로는,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시장접근제한 조치 도입과 현지주재 의무 부과 등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 협정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 조항으로는, 양국이 합의한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을 중심으로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을 구성하여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논의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국내규제 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임
- 또한 한미 FTA 협정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유보안에 포함시킨 법률·회계·세무 서비스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방을 명시함
  - 법률서비스의 경우, 발효 후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2

- 년 후 국내 보험과의 제휴 허용, 발효 5년 후 합작 및 고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 회계/세무서비스의 경우, 발효 후 외국의 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5년 후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를 허용함
  - 본래 97년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 이미 법률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게는 되어 있으나,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무자격자에 대해 한국 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법률회사나 사무소 설립도 금지되어 있던 법률서비스 시장이 금번 한미 FTA 협정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개방되기에 이른 것임
  - 이외,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등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다른 서비스에서는 유보안에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
    - 방송서비스의 경우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되 간접투자는 3년내 완전 철폐하고, 케이블 방송의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도 완화하도록 함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IPTV, 인터넷 VOD)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유보하며,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는 현행 수준으로 하되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함

## 2.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영향, 양날의 칼

- 상기 서비스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능동적 개방화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율 증대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을 경제적 이득으로 제시하고 있음
  - 가령, 국내에 진출한 미국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나 경영기법의 이전에 의한 혁신의 도입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기라는 것임
- 이와 함께,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최대시장인 미국의 서비스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도 서비스시장 시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서 거론되고 있고, 이외 외국의 우수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소비자 후생’ 도 한미 FTA에 의한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지는 중요한 경제적 이점으로 지적됨

- 가령, 법률시장의 개방 조치에 의해 일차 국내사무소 설치를 거쳐 국내 변호사 고용이나 국내 로펌과의 동업 등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여타 사업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장개방 분위기에 힘입어 외국인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임
- <표 14>는 최근 몇 년간 서비스수지 변화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서비스는 지난 00년 3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05년 61억 달러 적자에 이르기까지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對美 사업서비스수지는 지난 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뒤 05년 현재 9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향후 이 같은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는 FTA협정이 체결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표 14> 對美 주요 분야별 서비스수지 변화추세  
(단위: 백만 달러, %)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00-05년
전체	서비스수지	-2,847.8	-8,197.5	-8,046.1	-13,658.2	379.6
	특허권등 사용료수지	-2,533.0	-2,166.9	-2,584.8	-2,652.4	4.7
	사업서비스수지	-3,128.3	-3,601.8	-5,037.4	-6,115.2	95.5
	보험서비스수지	-77.8	-533.7	-322.5	-564.0	624.9
	통신서비스수지	-235.2	-307.6	-190.1	-330.1	40.3
	기타서비스수지	-5,189.1	-5,583.2	-6,639.5	-7,790.8	50.1
미국	서비스수지	-2,793.0	-3,318.5	-2,784.5	-4,022.5	44.0
	특허권등 사용료수지	-1,875.2	-1,384.2	-1,743.4	-2,065.3	10.1
	사업서비스수지	-723.0	-1,101.3	-500.6	-878.0	21.4
	보험서비스수지	-14.6	-73.3	-145.6	-329.0	2,153.4
	통신서비스수지	-45.1	-54.0	-77.4	-84.5	87.4
	기타서비스수지	-2,031.9	-1,735.7	-1,414.7	-1,987.0	-4.7

자료 : 한국은행

-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실현될 수 있는 긍정적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앞의 주요 논거들을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심화와 같은 상반된 시나리오에 의해 부정적 효과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도 같은 것임
- 기실, 모든 기업들이 경쟁과정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경험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개방에 따른 경쟁의 촉진과 경쟁력있는 기업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은 새로운 경제 환경을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된 기업 역량일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세 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구조(<표 11> 참조), 그리고 선진국의 1/3~1/2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표 9> 참조)



등을 고려해 볼 때 개방과 경쟁의 파급효과,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초래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을 계기로 제한된 규모의 국내 시장에서 경쟁의 격화와 생산 및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심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유사 서비스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국내 대기업(가령, 대형로펌)에게 경쟁압박으로 작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 하위시장으로 진입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인적 구조조정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대형화와 전문화의 대응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적응에 성공한 기업과 인력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인력에게는 경쟁에서 탈락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양극화로 귀결됨을 의미함
  -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이 철실하게 요구되는 대목은 국내 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다른 긍정적 효과는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최근 여건은 그다지 유리한 조건인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임. <표 14>는 00~06년 동안 산업별 대미 투자를 나타낸 것으로, 사업서비스는 총 812건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건수 대비 투자액은 극히 낮은 소액 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미 진출한 대미투자의 취약성을 나타냄
  - 투자건수 대비 투자액이 전체 산업은 5,478천불, 서비스업 전체는 5,122천불, 제조업 전체는 4,064천불인 반면, 사업서비스는 가장 낮은 수준인 1,383천불에 불과함

<표 15> 한국의 산업별 대미 투자 현황

(단위: 건수, 천불)

		2000	2002	2004	2005	2006	00-06년
전체	금액	15,256,009	9,092,517	12,792,006	11,563,488	11,233,077	77,693,897
	건수	4,145	2,409	3,077	3,667	3,109	22,316
미국	금액	2,921,330	4,490,730	4,717,126	2,689,764	1,701,014	21,643,702
	건수	803	495	552	496	498	3,954
농축수산	금액	167	8000	0	61	0	8228
	건수	1	1	0	1	0	3
제조업	금액	875,830	988,444	1,140,935	891,369	526,056	5,039,555
	건수	228	167	172	160	170	1,240
서비스업	금액	1,949,969	2,091,673	3,265,867	1,752,271	887,031	13,486,950
	건수	566	315	364	327	318	2,633
도소매업	금액	246,567	198,200	93,907	65,210	48,956	1,746,616
	건수	172	133	140	103	100	883
통신업	금액	49,985	3,135	10,674	20,708	2,530	101,856
	건수	29	7	4	7	1	63
금융	금액	305,005	184,157	2,677,975	1,181,762	164,015	4,964,644
	건수	59	32	46	48	44	347
사업	금액	211,005	70,257	72,301	296,993	16,9417	1,122,747
	건수	236	73	82	100	81	812
문화	금액	809,880	1,132,231	305,866	55,794	175,253	3,484,271
	건수	13	23	16	14	17	103

자료 : 산업자원부

○ 이러한 취약한 여건 하에서도 한미 FTA 협정이 가지는 동전의 다른 면으로서 국내기업의 미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일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 가령, 일부 고급 법조인력의 미국 로펌 진출과 같이 전문인력 이동(GATS 서비스교역의 네 가지 공급양식 중 mode 1)에 의해 현지국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여부(가령,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급자 자격취득 요건으로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요구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전문직비자(H1) 면제쿼터가 불허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직접적인 미국시장 진출, 즉 상업적 주재(mode 3)는 국내 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이나 상이한 제도 환경(가령 사법체계)으로 인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경우 미국은 국내 산업의 약 50배 규모에 달하는 152,000여 개의 업체와 98만여명의 인력이 고부가가치 핵심 영역인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구매·

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기술경쟁력이 선진국의 50~60%에 불과한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절반이 동일한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서비스시장으로의 진입이 그다지 수월치는 않을 것임

- 마찬가지로, 경영컨설팅의 경우에도 엔트루컨설팅, 네모파트너즈, 오픈타이드, 능률협회, 표준협회 등의 소수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3년 이상의 생존율이 30% 이하이고 정부조달 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박진수, 2005)

#### IV.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업의 쇠퇴 속에서 산업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이 가해지고 있음
  - 우선 지난 십여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노동생산성으로 구체화된 취약한 국제경쟁력은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을 요구함
  - 다른 한편으로, 현 시점에서 비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긴 하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환경으로서 한미 FTA 또한 국내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에도 양날의 칼로 작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요구함
  - 즉, 한미 FTA와 이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은 한편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경쟁의 가속화와 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후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함

##### 1. 전략적 선택과 집중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향후 육성의 필요성이 강한 ‘전략적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집중 육성함
- 전략적 선택은 크게 ‘성장주도형’ 과 ‘경쟁력 강화형’ 으로 구분하되,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설정함

- 성장주도형 :

창조적 서비스 : 광고/전문디자인

IT기술기반 서비스 : 컴퓨터시스템 설계/SW 개발·공급/DB 및 온라인 정보제공

- 경쟁력 강화형 :

전문가주도 서비스 : 법률/회계/경영컨설팅

기술집약적 서비스 : 엔지니어링/과학 및 기술서비스

- 경쟁력 강화형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취약한 경쟁력 여건에서 향후 한미 FTA 추진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취약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에 따른 것임

## 2. 지식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산업정책 수단으로 모색되고 있는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에 의거, 지식서비스 혁신시스템을 구축함
- 이는 제조업 영역의 기술혁신과 마찬가지로 지식집약적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도 경쟁력의 관건이 지식의 창조와 교류에 의거한 지속적인 혁신의 창출에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임
  - 다만, 하드웨어에 대한 물적투자 위주의 제조업 기술혁신과 달리 서비스혁신은 무형의 지식,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조직원리의 도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지식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물적·제도적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 (비즈니스)서비스혁신을 주도할 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서울 비즈니스서비스 혁신센터' (SBIC) 설치
  - 기업간 집적과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집적지구 및 집적시설 조성
  - 서비스혁신에 대한 업체의 인식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추진
  - 전문인력 양성과 조달을 위한 인적자원시스템 구축

- 전문인력 양성과 조달의 경우, 비즈니스서비스와 같은 지식서비스 영역에서는 지식의 교류와 확산의 주체가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혁신시스템 구축에서 핵심적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인적자원 정보은행 설치,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고용 및 훈련 장려금 지원 등을 모색함

### 3. 기업간 연계와 제휴의 활성화

-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간 연계와 사업간 제휴의 활성화는 서비스의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핵심적인 요소임
  - 공급자 편에서 볼 때,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된 기업들의 연계와 제휴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며, 다양한 지식과 서비스가 결합되어 단일의 패키지 제공되어야 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영역에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 사용자 편에서도 공급받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임
- 이와 같은 기업간 연계와 제휴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는 '전문기능연계형 협업모델'(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 Service, ICMS)을 비즈니스서비스 분야에 도입함
- 이를 위해 중소 비즈니스서비스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주축이 되어 다수의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진단 사업을 실시하며, 공공은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함
  - 동 사업은 공급주체인 비즈니스서비스 업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업간 협력과 상호학습을 위한 기반으로 기여할 수 있고,
  - 사용자 편에서는 실비로 양질의 전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공급받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의 완화

-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에 대한 각종의 규제나 차별을 완화하는 다양한 조치가 요구됨
- 물론, 서비스 분야가 가지는 특성상,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업입지와 세제에 관련하여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됨
- 더욱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의 기본 취지로서 경쟁의 강화와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원리에서 보더라도 수도권 입지규제나 차별은 정책원리간 상충될 소지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앙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와 차별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정비시스템을 구축함

#### 참고문헌

- 박진수, 2005, 글로벌 및 국내 건설링기업의 경쟁구조 변화,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7,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 정병순, 2004, 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서비스업 발전방안, 시정연 연구보고서.
-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한국생산성본부, 2006, 생산성 국제비교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ocie.go.kr/index2.html>)
- Soete & Miozzo, 1989, Trade and Development in Services: a technological perspective, Maastricht: MERIT Working Paper, 89-031
- Howell. J., 2003, Innovation, Consumption and Knowledge: Services and Encapsulation, CRIC Discussion Papers NO.62.
- Howell. J & B. S. Tether., 2002, Analysis of CIS Data on Innovation in the Service Sector